

기고

청소년 문제는 어른들의 시각부터 고쳐야 한다



김양복 조선이공대학교 총장

요즘 화두(話頭)는 힐링, 나눔, 소름, 복지, 배려, 일자리, 따뜻한 사랑 등이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가 얇아져서인지, 차가운 사회의 흐름인지 몰라도 온정(溫情)을 찾아보기가 여간 어렵다.

학교폭력이 점점 심해지고 학업 중단, 비행 학생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에 우울해 하던 중, 며칠 전 인터넷에서 보았던 '양초 두개 이야기'가 문득 떠오른다. "어떤 남자가 이사를 하여 이삿짐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일이 끝나기도 전에 정전이 되었다. 그래서 그는 불을 켜기 위해 여지가 뒤적거리다 양초와 성냥을 겨우 찾았는데, '똑똑'하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어둠 속에서 문을 열어보니 한 아이가

서 있었다. "아저씨 양초 좀 있으세요?" 순간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이사 온 첫날부터 얼굴도 모르는 나에게 양초를 빌려달라고 하네. 나에게 이번에도 불편한 이웃이 이사왔나? 만일 지금 양초를 빌려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저것 다른 것도 빌려 달라고 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애야, 우리 집에는 양초가 없다." 하고서 문을 닫으려 했는데, 순간 그 아이가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아저씨, 오늘 우리 이사 왔는데요, 이사 온 첫 날부터 정전이 되어 혹시 이웃 아저씨 댁에서 필요 할까봐 제가 양초를 가지고 왔어요."하며 내민 것은 양초 2개였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그 아이의 맑은 눈이 빛나고 있었고, 자신이 부끄러워 그는 똑바로 그 아이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운유하며 남을 배려하는가 또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고, 싸늘한가의 양면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그 아저씨였다면 어떻게 처신했을까? 자문을 보면서 이야기 속의 아이와 요즘 학교를 포기하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어른들의 시각을 비교해 본다. 2012년 광주·전남지역의 중도 탈락 초·중·고생이 3800여명(0.7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평균 1.01%) 특히 고교생은 100명에 2명꼴로 학교를 떠나고 있고, 떠나는 학생의 절반 정도가 학교에 부적을 해서 라고 하니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왜 그들이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일까?'를 5번은 되풀이 근본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같이 지내야 할 같은 또래의 친구 곁을 떠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그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해 우리 모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나는 애들, 폭력을 휘두르는 애들께도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 보면 모두 예쁘다. 다들 나름대로 특정 분야에 특기가 있고, 잠재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인정을 받지 못했을 뿐이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면에서 미숙한 청소년들이다. 그러므로 사회 각 분야 리더들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이런 현상들을 심층 분석하여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

을 내리서 청소년들을 선도해야 한다. 위 이야기를 다시 되돌아보면 양초를 주러 온 학생은 따뜻한 마음 소지자로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려고 찾아온 것이다. 당연히 환영하고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도리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웃을 경계하고 외면하고자 하는 아저씨의 태도는 요즘 더 난폭해진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아주 비정상적인 것이다. 긴 추석 연휴 동안 온 가족이 모여 서로 정담을 나누며 나와 나, 우리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았는지 궁금하다. 우리 애들을 '어떻게 성장시키고 교육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리고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는 만큼 가까워 진다'는 말처럼 문제 학생들을 더 가까이서 보듬어주고 아픔을 공유해야 한다. 그래야 더 좋은 처방이 나온다.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勇者不懼)'는 공자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 청소년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용기를 가져보자.

社說

정부·정치권, 추석 민심 제대로 새겨라

광주·전남 출신 정치인들이 고향에 내려와 확인한 추석 민심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살리기가 주류를 이뤘다. 또, 국회 3차회담 이후 청와대와 야당의 전면전 선언과 국정원을 비롯한 채동욱 검찰총장 혼의 자식살, 이석기 의원 문제, 8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자체 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이야기 등 다양한 의견들도 쏟아졌다. 먼저, 일자리는 없고 하루가 무섭게 뛰어오르는 물가와 늘어만 가는 빛 때문에 서민들은 추석 명절을 맞은 기쁨보다 고통이 더 앞섰다. 지역경제가 내리막 길이다 보니 가뜰이나 부족한 일자리라는 더욱 줄어들었다.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부도에 내몰리고 있다. 이 지역 20~30대 취업률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률은 50~60%로 타 시·도와 비교해 최하위권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도 무려 40만 명에 이른다. 극빈층도 부지기수다. 천정부지의 물가와 공공요금 인상, 불어만 가는 가

계 및, 전·월세난 등은 서민들에겐 두려움 그 자체다. 지역민들은 또한 청와대와 야당의 대처 정책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와 함께 국회가 민생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정쟁과 감정적 대립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에 대해서도 민생과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원내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주문이 많았다. 이제 정치인들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살피려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서민을 위한 민생대책을 세우고,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줄 수 있는 명분과 함께 대화의 정치를 펴야 한다. 민주당 역시 민생 이슈에 대해서는 국회에 등원해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인사와 예산의 상대적 소외에 대한 한목소리도 중요하다. 민심을 외면하고 성공한 정치나 정부는 없다.

북한, 이산가족 만남을 볼모로 삼아서야

북한이 지난 21일 갑자기 추석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혀 혈육들이 이와 같은 능력이 없어서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인간에게 저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현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뢰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데 필자가 솔직하게 말하니 돌아오는 답도 솔직하다. '덕담과 더불어'라고 제 사건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의미심장한 답이 오기도 하고, "저는 이번 연휴 기간 중에 숙제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준비해 올게요."라는 안쓰러운 답이 오기도 하며, "늘 최선을 다하시는 변호사님, 사랑합니다!"라는 과격한 애정표현이 오기도 한다. 갈수록 변호사가 힘들다고 하지만 앞서 말한 비법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변호사로서 일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진심을 담아 일을 하면 의뢰인들은 그 진심을 알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다가 머리를 쥐어뜯고 서면이 잘 안 써져서 약 소리를 지르고, 재판관느라 몇 번씩 법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나사가 하나 풀려 "나너오 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며 사무실에 들어오는 식의 시트콤을 찍는 필자이지만,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 상태가 참 감사하고 좋다. 진실은 모름지라도 진실은 통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이산가족 1세대는 대부분 고령자이다. 따라서 북한이 이산가족을 볼모로 삼아 상봉 자체를 회피한다면 대다수가 생이별의 아픔을 가슴에 묻은 채 눈을 감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통일부와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상봉 신청자는 12만 9035명이지만 이 가운데 44%에 달하는 5만6544명은 이미 사망했다. 특히 최근 10년 사이 급속한 고령화로 매년 약 4000명에 달하는 이산가족이 세상을 뜨고 있어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북한은 이산가족의 만남이라는 인간적인 행사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약용한다면 민족적 신뢰 상실은 물론, 국제사회의 비난에서도 자유롭지 못할 결국 더 큰 것을 잃게 된다는 뜻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 정부 역시 차분하고도 면밀한 대응과 함께 북한이 상봉에 나서도록 설득해 인륜을 잇는 이산가족 만남을 한시라도 앞당겨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진실은 모름지라도 진심은 통하는 법



김혜민 변호사

추석 연휴에 영화 '관상'을 봤다. 이 영화에서 주로 다루는, 관상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 필ipp이, 그릇 등을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은 최근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능력 중 변호사가 갖고 싶은 3대 능력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다른 두 능력은 아마도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에서 사람의 속마음이 그대로 음성 지원되는 능력과 드라마 '주군의 태양'에서 죽은 자를 볼 수 있는 능력일 것이다. (물론 필요할 때만 능력이 생한다는 전제하에!) 범죄사실이라는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달리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성범죄에서 가해자는 '성범죄' 정도로 치부하는 반면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그렇다. 필자는 최근 성범죄의 가해자 편에서 가해자를 변호하는 사건과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들

을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을 비슷한 시기에 함께 진행한 적이 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이라면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그 누구도 진실을 알 수가 없고, 쌍방이 하나의 팩트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필자에게 당사자의 얼굴만 보고도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인지 아닌지를 간파할 수 있는 능력이나,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속마음을 읽어내어 가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어떨까. 또는 몇 년 전 받았던 강간살인 사건처럼 피해자는 이미 진실을 말할 수 없고 가해자는 범죄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죽은 피해자가 필자에게 진실을 말해 줬다면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마 필자가 그런 비법한 능력을 가지고 총황무진 했다면 지금 좁 변호사로서 이런 법조칼럼을 쓸 수 없었을 것이다. 변호사가 무덤대고 피의자나 피고인의 얼굴과 눈빛만 보고 "이 사람은 절대 그런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고 강변하면 이는 이미 유죄라는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하는 수사 못지않게 일백전 변호에 불과하다. 변호사의 변론은 당사자 그의 가족, 지인들이 하는 탄압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호사의 변호에는 법에 기초한 합리성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필자를 비롯한 법조인들이 그러한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서 수년간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 혹은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고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질 조사에 동석하여 당사자들의 속마음을 읽고는 "저건 거짓말입니다"고 외쳐봐야 조사 분위기가 더 험악해지지 않겠는가. 피고인을 위한 서면을 쓰느라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필자 앞에 죽은 피해자가 나타나 "변호사님, 사실은 아무개가 모일 모일 모시에 어디에서 어떻게 하여 저를 죽였습니다"라고 알려준들, (피고인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를 서면에 기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 이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귀신이 알려줬다고 쓸 수도 없고 그런 증거를 갑자기 찾아와서 들이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마 진실을 알고 나서 더욱더 머리를 쥐어뜯을지도 모를 일이다. 참 어렵다. 뭐가 진실인지도 모르겠거니와 진실을 진실이라고 명료하게 전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무엇보다 진실과 거짓을 떠나서 의뢰인을 만족시키는 것은 더 어렵다. 그래서 때론 자려고 누웠는데 바로 잠이 안 오면 고민 중인 사건들이 머리속에서 등등 떠돌아다닌다. 사무실 밖에서 일하다가 필가 안 풀리던 때도 모르게 혼자 화를 내기도 한다. (직원들은 이런 필자를 보면서 변호사가 마냥 편하고 좋은 직업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고 최근 고백했다.) 이게 다 필자가 이와 같은 능력이 없어서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점은 인간에게 저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라는 직업이 현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뢰인들과 연락을 주고받는데 필자가 솔직하게 말하니 돌아오는 답도 솔직하다. '덕담과 더불어'라고 제 사건도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 의미심장한 답이 오기도 하고, "저는 이번 연휴 기간 중에 숙제하는 기분으로 열심히 준비해 올게요."라는 안쓰러운 답이 오기도 하며, "늘 최선을 다하시는 변호사님, 사랑합니다!"라는 과격한 애정표현이 오기도 한다. 갈수록 변호사가 힘들다고 하지만 앞서 말한 비법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변호사로서 일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진심을 담아 일을 하면 의뢰인들은 그 진심을 알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다가 머리를 쥐어뜯고 서면이 잘 안 써져서 약 소리를 지르고, 재판관느라 몇 번씩 법원을 왔다 갔다 하다가 나사가 하나 풀려 "나너오 쟈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인사하며 사무실에 들어오는 식의 시트콤을 찍는 필자이지만, 부족한 대로 최선을 다하는 이 상태가 참 감사하고 좋다. 진실은 모름지라도 진실은 통하기 때문이다.

기고

개관 20돌 맞은 전남농업박물관



김우성 전남농업박물관장

"전국의 박물관을 다 둘러보았지만 농경 문화 유물 전시를 이렇게 잘 해놓은 곳은 처음 본다. 주변 사람들이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얼마 전,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일상으로 박물관을 순회하고 있을 때 초로의 부부가 아들 내외와 함께 본관 전시관을 둘러보던 중 갑탄사를 연방하며 한 말이다. 귀가 솔깃해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었더니 경기도 수원에서 왔다고 했다. 신분을 밝히고 새로 전시한 유물들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개관할 쌀 박물관, 쌀농업공원, 확대 배경 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더니 "취지가 정말 좋고, 잘 꾸미고 있다"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다시 한번 찾겠다"고 말했다. 이런 얘기를 새삼 깨내는 것은 지난 4월 부임한 이래 박물관인으로 일하면서 처음으로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자 의지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이 24일로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1993년 문을 연 이래 농업

의 산 교육장이자 농촌 관광의 핵심 역할을 해온 농업박물관이 어느덧 성년이 된 것이다. 전라남도는 예로부터 농경문화를 꽃피웠던 곡창지대로 농도였을 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의 숨결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예향의 고장이기도 하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은 농업의 중요성은 물론 벼·보리·밀이 어떤 것인지 구별조차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또한 앞으로 재양으로까지 떠오르게 될 식량문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의 농촌 현상을 더욱더 애정을 갖고 이해하고 농촌 회생에도 관심을 쏟아야 한다. 전라남도는 일찍이 이러한 일을 염려해 농도의 특성을 살리고 사라져가는 전통농경 문화유산의 수집 보전 전시해 조상들의 슬기로움을 후손들에게 일깨워주고자 농업박물관을 오픈했다. 이러한 취지 아래 문을 연 농업박물관은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농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사회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아울러 친체 일로에 있는 농업,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박물관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쌀·대보름맞이 민속놀이 체험, 벼한살이 체험, 전통 짚공예 품 만들기 체험, 전통 매주 만들기 체험, 한가위 전통 음식 만들기, 전통혼례 체험, 허수아비 만들기 대회, 농촌사랑글짓기 대회 등 각종 체험 행사가 바로 그것이다 하겠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로 하여금 잊혀져가는 전통 농경문화와 조상들의 얼을 되새김은 물론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비

롯한 농촌사랑운동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행사 때마다 많은 참가자들이 성황을 이루고 있는 점으로 미뤄 미덕이 나마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향후에도 더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 관람객을 맞이할 요량이다. 특히 전남농업박물관은 올해 개관 2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큰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먼저 기존의 나후한 전시 관람 위주의 본관 전시시설을 1년여의 리모델링 공사 끝에 지난 7월 재개관, 최첨단 전시기기로 연출해 관람객의 호응 속에 운영중이다. '영원한 인류의 생명창고 농업'이라는 주제 아래 농경문화의 역사적 전천과 사계절 농경의 생활모습, 농촌 공동체문화 등 전통들의 다양한 농경문화를 엿볼 수 있게 했다. 본관 전시실 뒤편으로 쌀문화테마파크를 새로이 조성중이다. 이는 쌀박물관과 쌀농업공원으로 구분된다. 쌀박물관에는 쌀의 역사·문화·경제와 생태·환경·영양·미래 등을 테마로 한 상설전시실을 비롯한 기획전

시실, 3D 입체영상실, 쌀 요리체험실, 유기농판매센터 등이 들어서 전시 관람과 함께 교육·체험·휴식·판매 공간으로 활용된다. 영산호변 쌀농업공원시설에는 이라광장을 비롯한 선농단 국왕 친경지, 벼 한 살이 체험장, 주말농장, 생태연못, 친환경농학습장 등 26종에 달하는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학생들이 산과 들에 가지 않고도 한 곳에서 우리 전통 농경문화와 자연환경을 동시에 배우며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농업박물관이 전남 농업의 상징이자 조상들의 지혜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서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지로 손색이 없을 것이라는 예기다. 이제 농업박물관은 학생들에게는 체험학습장이자 시청각 교육실이며, 일반에게는 고향의 향수를 만끽하고 어머니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매력적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다. 이 가을, 성년이 된 농업박물관은 분명 여러분의 하전한 가슴을 풍요롭게 채워줄 수 있는 '명품 체험·관광'을 선사할 것으로 자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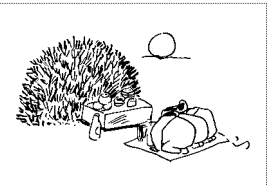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8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等鼓

초·중·하이시절, 선친과 함께하는 추석 성묘 길은 참으로 힘든 고행길이었다. 새벽같이 차례를 지낸 뒤 귀향 완행 버스를 타고, 성묘 길에 나섰다. 많은 성묘객들로 폭박 들어찬 낡은 버스 안은 움푹딱딱할 수도 없는데다 특유의 역한 냄새 때문에 멀미와 구토를 피할 수 없었다. 버스에서 1시간 가량 시달리다 하차 한 후에는 여러 조상묘를 거처며 산 남이혼 건수를 조사했다니 결코 또 곁여야 했다. 더욱이 고향마을은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오지여서 성묘를 다 마친 후에도 마을에서 찾길까지 1시간 가를 또다시 걸어 나와야 했다. 그렇게 힘든 성묘를 다녀온 후엔 돌부리에 얽 지발뵤이 어김없이 까맣게 변해 빠지곤 할 정도였다. 그 어린시절 나름의 '명절 스트레스'였던 셈이다.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린시절 성묘 길은 아버지의 인생과 조상·집안의 내력, 지나는 마을들의 역사, 나무·식물이를 등을 생생하게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끝났다. 많은 이들이 고향을 찾아 가족·친지와 명절을 함께 보냈다. 그렇지만 즐겨워야 할 명절기간 동안 음식 장만에 시달린 주부들 비롯해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취업 준비생, 결혼이 늦어진 노총각·노처녀 등은 많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어야 했다. 실제 통계청이 최근 5년 동안 설과 추석 직후에 이혼 건수를 조사했다니 전담보다 평균 11% 정도 많아졌다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명절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으로 'STRESS 운동'을 소개했다. 웃음(Smile), 온 가족이 함께(Together), 서로 존중하고(Respect), 가족끼리 이벤트(Speak)를 만 들고, 고마움을 표현하고(Speak), 천천히(Slowly) 운전하라는 거다. 요즘 추석 명절의 전통적인 의미가 세대에 따라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다. 긴 추석 연휴를 마치고 자신들의 삶터로 돌아갈 때 '스트레스' 대신 '가족애(愛)'를 듬뿍 담아갔으면 싶다. /송기동 체육부장 song@kwangju.co.kr

명절 스트레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김우성 본부장 김우성 편집국장 김우성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제11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매달인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매체부 2200-621 정취부 2200-612 체육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사 회 부 2200-616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2-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지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